

여러분의 몫입니다.

임마누엘의 표징

낮선 지역에서 도로표지판을 찾으려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표지판이 “당연히 있어야 할” 곳만 보게 됩니다. 저는 표지판이 건물에 붙어 있는 지역에도 가보았고, 길 중간에 매달려 있는 지역에도 가보았습니다. 일단 표지판을 본 후 어디를 보면 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쉽게 표지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지판을 검정색과 흰색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녹색 표지판이나 갈색 표지판들은 바로 코 앞에 있어도 볼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을 “알고” 있을 때, 표지판을 찾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끔 깨닫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면,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이나 슬픔 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른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선지자들, 심지어 예수님도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운이 좋은 인생”을 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표징을 알아보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석,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지혜와 지식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많은 분야에서 학위를 받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데 있어 불평등의 장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여성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에,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전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선교할 때,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공식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지식까지도 귀기울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곳에 있는 마을의 여성들에게 배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성 노숙자들에게도 배웁니다. 이와 같은 실천은 우리의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는 일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도처에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본부는 조직개발 “전문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개체, 지방회 그리고 연회 그룹들에서 일하는 회원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우리가 배운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시도하고, 배우고, 우리가 배운 것을 공유할 때 성장합니다.

대강절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표징들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몇명 안되는 사람들만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알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총무 헤리엇 올슨